

학교탐방

“꿈과 희망이 자라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오호초등학교

Hi Flower 오호(아름다운 꽃, 향기로운 꽃, 개성 있는 꽃이 되게 하자)

고성군 죽왕면 황포길 28에 위치한 오호초등학교(교장 최문희)는 1924년 4월 1일 오호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한 이래 현재까지 총 졸업생 3,083명을 배출한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고성의 명문 초등학교로 현재 전교생 41명과 병설유치원 9명, 교직원 13명이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



최문희 교장

‘꿈과 희망이 자라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목표로 아름다운 교육환경 속에서 바른 심성과 개성을 키워가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Hi Flower 오호(아름다운 꽃, 향기로운 꽃, 개성 있는 꽃이 되게 하자)를 정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Hi는 늘 반갑게 인사하는, 그리고 높은 이상과 실력을 뜻한다. Flower는 사계절 꽃피는 우리 학교와 그 안에서 큰 뜻을 품고 자라나는 오호 어린이들을 상징하는 것

으로 아름다운 꽃 가꾸기는 안정된 환경 속에서 바른 인성을 기르는 예절바른 어린이로, 향기 나는 꽃 키우기는 알찬 교육과정으로 큰 꿈을 키워가는 실력 있는 어린이로, 개성 있는 꽃 피우기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내가 최고 되는 개성 있는 어린이로 성장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자아발전, 자기성장을 위한 질 높은 교육과 다양한 소질을 개발하기 위한 드럼, 댄스스포츠, 사물놀이, 그리기, 영어 등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보육교실을 우수 강사 초빙을 통해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교특색교육인 학급별로 ‘재미있게 익히는 한자 공부’를 통해 졸업할 때까지 6급 이상의 한자 급수취득을 목표로 열심히 한자를 익히고 있다.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위해 다양한 체험학습을 계획하여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봄소풍(강릉·양양 일대) 등을 실시하였고 DMZ박물관, 학생수련활동, 물놀이, 도시체험학습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6월 중에는 10회에 걸쳐 평생교육으로



오호초등학교 전경

어머님들의 꽃누리미 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행사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학부모들과 공동창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기 때문에 학교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오호초등학교 최문희 교장은 “공동문화

회원들과 학부모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며 전 교직원들은 도시에 뒤지지 않는 학교 시설 확충과 다양한 교육과정 접목으로 사랑스런 오호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16>

고성팔경(高城八景)⑥ 건봉사(乾鳳寺) V

금강산 건봉사의 사명대사 유품과 보물

건봉사를 들어서면 왼쪽으로 사명당(四溟堂, 惟政, 松雲) 동상이 있는데, 금강산 등 명산에서 수행하였으며 임진왜란(壬辰倭亂) 시 승병을 모집한 승군도총섭(僧軍都總攝)이었다. 탁월한 외교가이기도 하였던 사명당의 업적을 기리고자 높이 1.2m, 둘레 3m의 동상을 세웠다. 또한 승병 봉기처이기도 했던 것을 기념하여 2003년 9월에 사명당 의승병 기념관도 건립하였다. 그 밖에 건봉사는 1464년(세조 10)에 임금이 행차하여 원당(願堂)을 삼은 뒤 어실각(御室閣)을 지었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중수 및 중건사업이 이루어졌다. 그 중 왕실의 후원도 3차례나 있었다.

『건봉사본말사적』에 따르면 건봉사의 보물로는 도금원불(鍍金願佛)·오동향로(烏銅香爐, 小型)·철장(鐵杖)이 세 가지는 사명대사의 유품이며, 대종(大鍾)은 불기 2700년 조선 1673년(현종 14)에 만들어졌다. 어제절함도(御製折檻圖)·차거다반은 숙종(肅宗)의 유품을 영조(英祖)가 하사한 물건이다. 또 하나의 오동향로(烏銅香爐)는 순조(純祖 4)에 대비(大妃) 김씨(金氏)의 하사품이다. 현재에 이르러 아쉽게도 남아있는 유물은 하나도 없다. 다만 『조선고적도보(명저출판사 펴냄, 1915년)』에는 건봉사의 보물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도금원불(鍍金願佛)·오동향로(烏銅香爐, 小型)·철장(鐵杖)= 앞에서 언급한바 『조선고적도보』에는 1912년에 사

명대사 유품을 촬영한 사진이 남아 전해지고 있다. 8.15 해방 후 건봉사 유물보관소에 있었던 것이 한국전쟁 시기에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는데 포항 모 언론매체가 2007년 04월 27일

(금)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포항시 북구 용흥동 대성사의 금동여래좌상은 『건봉사사적』에 보이는 사명대사의 도금원불로 추정된다. 고려 말 라마계의 불상양식을 취하고 있는데 원만상(圓滿像)일 뿐만 아니라 완형이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며, 연화대좌 위에 편단우견(偏袒右肩)의 대의(大衣)를 입고 결가부좌하였다. 나발의 머리에 육계가 높이 솟았으며, 육계 정상에 연꽃봉오리 모양의 계주가 표현되어 있다. 왼손은 선정인(禪定印) 모양을 하고 있으며 오른손은 무릎 아래로 내려 촉지인(觸地印)을 결하고 있다. 대좌는 양련(仰蓮)과 복련(覆蓮)이 연결한 연화좌인데 꽃잎 가장자리는 선각하여 사실감을 강조하고 있고 꽃잎 사이에 다시 둥근 꽃잎무늬를 양출하여 입체감 있게 표현하였다. 비록 높이 9.4cm의 소규모 불상이나 안정적인 비례감을 지니고



사진 왼쪽부터 사명당의 유품인 도금원불(1912년 촬영 당시 조선고적도보 수록), 포항시 북구 용흥동 대성사에 소장된 도금원불, 오동향로(소형, 1912년 촬영 당시 조선고적도보 수록).

있고 세부표현도 매우 치밀하게 이루어져 있다.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묵서명(墨書銘)이 사명대사의 친필로 추정되고 있어 주목된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대종(大鍾)= 조선 1673년(顯宗 14)에 수흡(修翕)·도율(道律)스님이 화주(化主)가 되어 큰 종을 주조(鑄造)하니 무게가 1,700근(斤, 1,02톤)이나 되었다.

절함도(折檻圖)와 차거다반= 두 개의 유품은 조선 숙종(肅宗)의 유품이다. 1754년(영조 30) 8월에는 영조가 숙종의 손수 제작한 어제절함도(御製折檻圖)와 친필 서문(序文, 御筆書)을 하사하자 어실각(御室閣)에 봉안하였다. 차거다반(인도지방의 바다에서 나는 조개껍질로 장식하여 만든 찻반으로 백색 광택이 나는 칠보의 한 종류임)

오동향로(烏銅香爐)= 조선시대 1804년 순조(純祖 4)에 왕대비(王大妃) 김씨(金氏)가 금(金) 천금과 오동향로(烏銅香爐)·오동화준(烏銅花樽)·양산(陽傘) 등을 하사하고 순조 임금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였다. 1805년 순조(純祖 4) 대비(大妃) 김씨는 나라를 위한 재(齋)를 올리고 병풍과 화엄경(華嚴經) 1부를 하사하였으며, 1828년 유정(惟政)의 영각(影閣)을 지었다.



김 광 섭

- 향토시학자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 위원
-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사무국장
- 논문: <선유담의 고찰, <간성의 만경대와 누정 고찰>